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산업생산지수 2009년 1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 보이다 5월 큰 폭 감소 - 5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84.2로 전년동월대비 -17.7%로 감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대형마트의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8.5% 증가 - 5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7.1%, 대형마트 10.3%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의복, 신발, 가방, 화장품의 판매호조로 7.1% 증가,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채수 증가와 섬유제품, 식료품 등의 판매호조로 10.3% 증가 ○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포함으로 전국 평균대비 0.1%p 높음 - 6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2로 전월대비 포함, 전도시 평균 -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항목별로 전월에 비해 교통, 의복신발, 외식숙박 부문 등에서 상승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0.3%, 8.5% 각각 하락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6%로 전국대비 0.6%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6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한 61.6%로 나타남 ○ 6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및 청년층 취업자 수 소폭 증가세로 반등 - 6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2명(-1.5%) 감소한 4,859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9천명(-1.4%), 여자는 33천명(-1.6%)이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1.7%)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5-59세의 고령층 취업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 그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 급증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전국대비 0.7%p 높아 - 6월 서울의 실업률은 4.6%으로, 남자는 5.3%, 여자는 3.6%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감소 - 5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024십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2.9% 감소 - 공공부문은 지하철공사 및 신규주택, 관공서 수주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8.2% 감소, 민간부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등의 수주감소로 전년동월대비 58.0% 감소 ○ 6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확대 - 강남지역(0.5%)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월(0.2%)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됨 - 강북지역(0.3%)도 국지적인 개발호재로 상승 폭이 확대됨 ○ 6월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상승 폭 확대 - 강남지역(0.8%)은 강세를 지속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폭이 크게 확대 - 강북지역(0.3%)에서는 서대문구(-0.2%)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냄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5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2조 4,34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11% 증가 ○ 5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26개로 전년동월대비 4.1%(61개) 감소 ○ 5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2개로 전년동월대비 30.7%(23개) 감소 ○ 6월 서울시 수입과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 6월 서울의 수출은 25.1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6.4% 감소. 수출 1순위는 편직물,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고무제품 등의 순 - 6월 서울의 수입은 60.0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6.0% 감소.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등의 순

| 생 · 산 |

5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심화

- **전국의 5월 광공업 생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9% 감소, 전년동월 대비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부진하여 9.0%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부진하여 전월대비 1.2% 감소, 전년 동월대비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0.2% 증가

- **5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17.7%로 감소세 심화**
 - 5월 중 서울시 산업생산지수는 84.2(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7.7%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금속가공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의복 및 모피, 섬유 제품, 전기장비 감소
 - 2009년 1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5월 또 다시 감소세 심화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 경공업부문 감소세 지속**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4.0% 로 지난달 플러스 성장 후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3.8% 로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냄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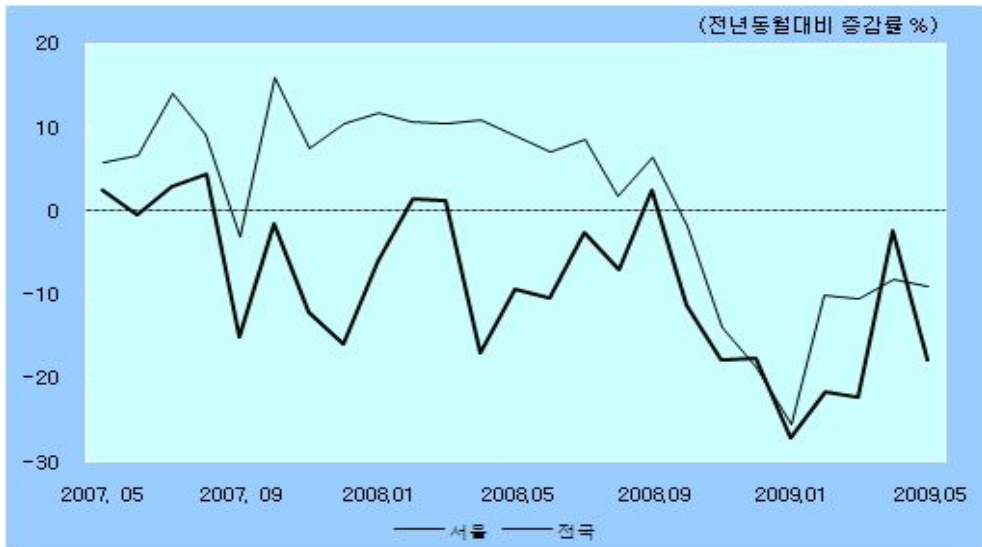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5월	1월	2월	3월	4월p	5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8.9 (0.0)	-25.5 (-5.7)	-10.0 (6.3)	-10.5 (14.6)	-8.2 (1.2)	-9.0 (-0.9)
	서울 (제조업)	-9.4 (-0.5)	-27.1 (-11.6)	-21.7 (-3.9)	-22.2 (10.2)	-2.3 (12.5)	-17.7 (-16.1)
	중공업	-14.2 (10.2)	-44.9 (-31.5)	-46.3 (0.0)	-41.0 (13.4)	9.8 (46.5)	-24.0 (-23.8)
	경공업	-6.1 (-6.2)	-16.6 (-0.3)	-3.5 (-5.4)	-9.8 (8.8)	-9.0 (-2.2)	-13.8 (-11.1)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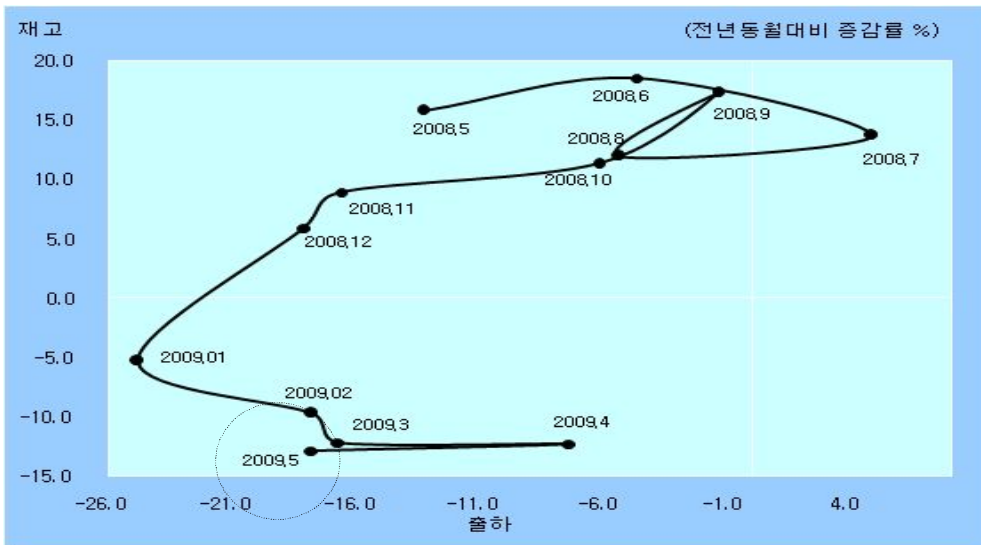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5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지역의 5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36.3로 전년동월대비 18.5% 감소
 -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1차금속 등에서 감소, 재고율은 164.8로 전월대비 15.7%p 증가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7.9로 전년동월대비 -2.5% 감소,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섬유제품 등에서 감소
 - 출하 및 재고 각각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 증감을 중공업, 경공업 부문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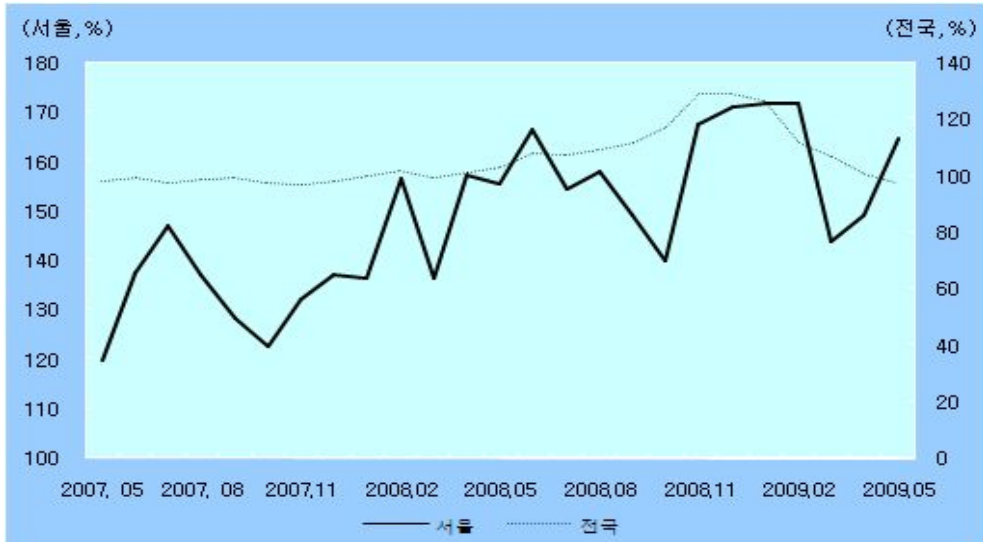
- 5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7.4%로 전월대비 3.3%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64.8%로 전월대비 15.7%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2.5%p 증가한 157.5%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8.1%p 증가한 165.9%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단위: %)

구분	2008년 5월	2009년					전월대비 증감	
		1월	2월	3월p	4월p	5월p		
재고율	전국	103.2	126.7	112.1	106.8	100.7	97.4	-3.3
	서울	155.6	171.7	171.8	143.8	149.1	164.8	15.7
	중공업	138.4	192.4	183.2	126.5	145.0	157.5	12.5
	경공업	164.6	158.3	161.6	147.0	147.8	165.9	18.1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5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지속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8.8% 증가

- 전국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8.8% 증가함
- 유형별로는 오락, 취미, 경기용품 등의 준내구재가 0.4% 증가 하였고, 업태별로는 전문상품 소매점 2.4%, 백화점 4.6%, 무점포판매 1.4% 증가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대형마트 모두 증가

-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5,107억으로 전국대비 33.1%의 구성비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로는 백화점 7.1%, 대형마트 10.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5%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의복, 신발, 가방,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호조로 7.1% 증가
- 대형마트의 경우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통신, 1차금속 등에서 감소,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전년 61개 → 금년 65개)로 음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10.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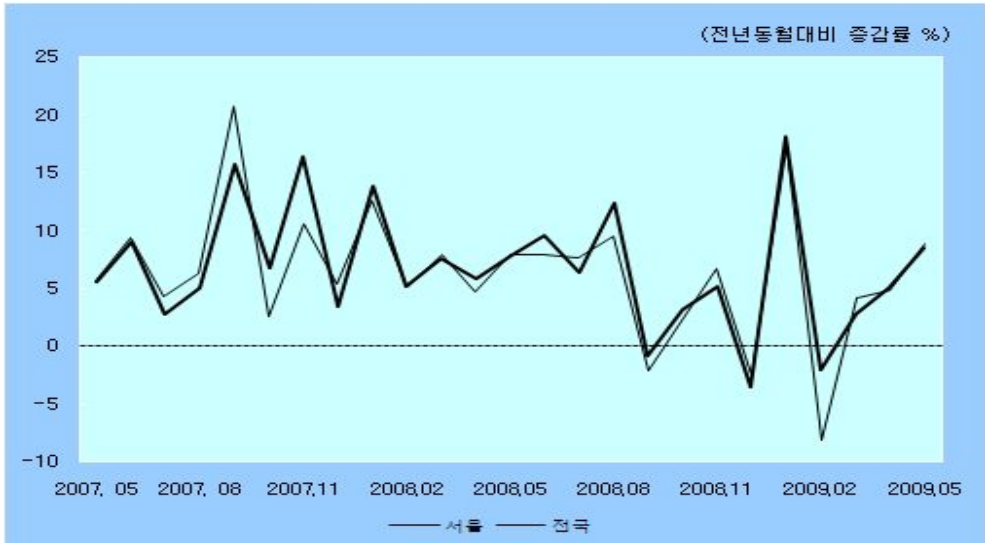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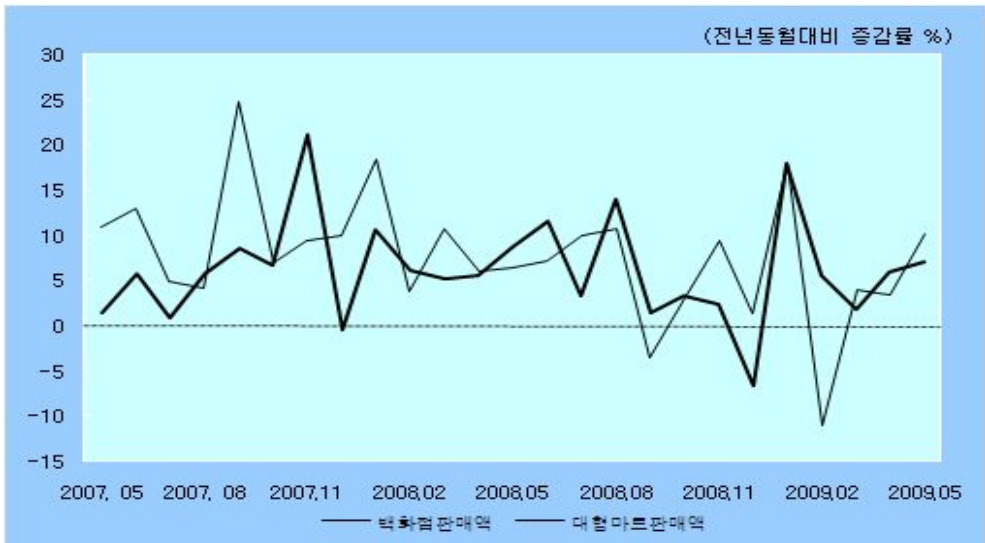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5월	1월	2월p	3월	4월p	5월p
판매액	전국	4177.1 (7.9)	4779.3 (17.2)	3754.6 (-8.2)	4296.4 (4.1)	4158.0 (4.8)	4543.5 (8.8)
	서울	1392.7 (7.9)	1631.9 (18.1)	1273.4 (-2.1)	1404.2 (2.8)	1422.6 (5.0)	1510.7 (8.5)
	백화점	798.6 (8.8)	946.3 (18.0)	739.9 (5.5)	791.9 (1.8)	841.0 (6.0)	855.4 (7.1)
	대형마트 (할인점)	594.0 (6.6)	685.6 (18.2)	533.5 (-10.9)	612.2 (4.1)	581.5 (3.6)	655.3 (10.3)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6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포함, 전국평균에 비해 높음

- 전국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0.1%로 7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
 -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6로 전월대비 -0.1%로 2008년 11월 이후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 전년동월대비로는 2.0% 상승하여 2009년 2월 이후 4개월째 감소
 - 생활물가지수 부문은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0.5% 상승, 신선식품 부문은 전월 대비 9.1% 하락, 전년동월대비 10.6% 상승
 - 전월과 대비하여 식료품비주류음료부문은 배추, 감자, 고등어, 참외 등이 내려 2.8% 하락, 교양오락부문은 생화와 단체여행비(해외) 등이 내려 0.3% 하락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부문을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부문 8.1%, 기타잡비부문이 7.5% 상승, 교통부문은 8.6% 하락

- 6월 서울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포함으로 전국 평균대비 0.1%p 높음
 - 6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2로 전월대비 포함,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7개 도시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서울, 인천, 대전은 전국 평균(-0.1%)에 비해 0.1%p 높고, 대구, 광주, 울산은 포함, 부산은 낮음
 - 전월에 비해 교통, 의복신발, 기타잡비, 외식숙박 부문 등에서 상승, 특히 택시료(12.5%), 휘발유(4.8%)가 오른 교통부문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3.0%), 교양오락(-0.2%) 부문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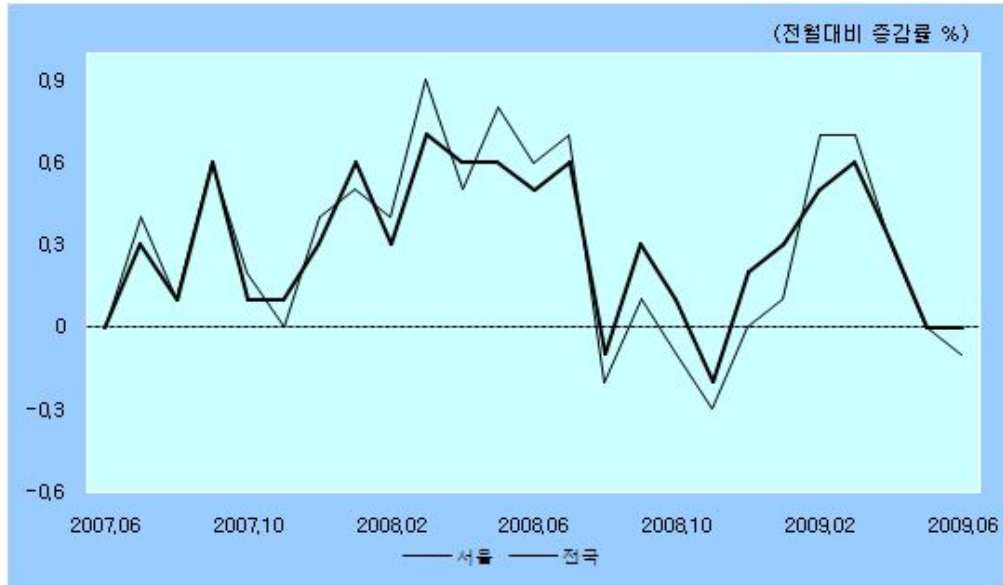
- 서울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0.3%, 8.5% 하락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전국:-0.2%)하락, 전년동월대비 1.5%(전국:1.8%)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8.5%(전국:-1.3%) 하락, 전년동월대비 10.7%(전국:15.7%)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비	전국	0.6 (5.5)	0.1 (3.7)	0.7 (4.1)	0.7 (3.9)	0.3 (3.6)	0.0 (2.7)	-0.1 (2.0)	
	서울	0.5 (4.6)	0.3 (3.7)	0.5 (3.9)	0.6 (3.9)	0.3 (3.7)	0.0 (3.0)	0.0 (2.6)	
	상품 성질별	상품	0.9 (7.1)	0.5 (4.4)	1.2 (5.6)	1.1 (6.5)	0.4 (6.1)	-0.1 (4.4)	-0.4 (3.0)
		서비스	0.3 (3.4)	0.1 (3.4)	0.2 (3.2)	0.4 (2.6)	0.2 (2.5)	0.0 (2.3)	0.2 (2.2)
	생활물가	0.6 (5.5)	0.4 (2.9)	0.5 (3.2)	0.9 (3.2)	0.7 (3.3)	-0.2 (2.4)	-0.3 (1.5)	
	신선식품	-5.4 (-7.2)	7.3 (0.3)	1.6 (2.1)	3.2 (10.2)	3.6 (15.4)	-1.8 (14.4)	-8.5 (10.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6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6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3%p로 하락세 지속
 - 전국 6월 15세 이상인구는 40,0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7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92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천명(0.8%)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4,578천명으로 234명(1.6%)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349천명으로 34천명(-0.3%)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6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6%로 전국대비 0.9%p 낮음
 - 6월 15세이상 인구는 8,3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천명(0.8%)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1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명(-0.7%)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19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4천명(3.4%)이 증가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5 (0.1)	-0.1 (-1.3)	-0.2 (-0.2)	-0.2 (1.7)	-0.2 (1.6)	-0.1 (0.8)	0.8 (1.1)
	서울	0.0 (-0.1)	-1.4 (0.1)	-2.0 (-1.3)	-1.5 (1.6)	-1.2 (0.3)	-1.3 (0.2)	-0.7 (0.6)
	남자	-0.3 (-0.4)	-0.8 (0.3)	-1.2 (-0.9)	-0.8 (1.3)	-0.9 (0.1)	-0.9 (0.7)	0.0 (0.5)
	여자	0.3 (0.4)	-2.3 (-0.3)	-3.1 (-1.7)	-2.4 (2.2)	-1.6 (0.6)	-1.8 (-0.6)	-1.6 (0.7)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5	59.5	59.3	60.2	61.2	61.6	62.2
	서울	62.5	60.9	60.1	61.1	61.2	61.3	61.6
	남자	74.1	72.5	71.8	72.7	72.7	73.2	73.5
	여자	51.5	49.9	49.1	50.1	50.4	50.0	50.3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업·자 |

6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전국의 6월 취업자 여성보다 남성 취업자를 중심으로 증가

- 6월 취업자는 23,9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0%)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9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5천명(0.7%) 증가하였고, 여자는 10,005천명으로 91천명(-0.9%) 감소하여 여성보다 남성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로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하였음

■ 6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및 청년층 취업자 수 소폭 증가세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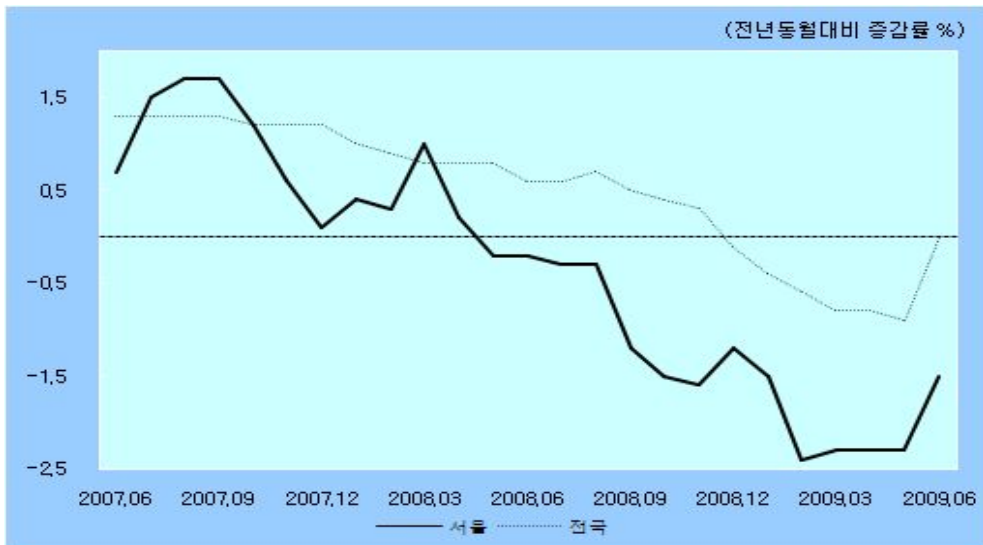
- 6월 취업자는 4,88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명(-1.5%)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15천명, 여자는 2,07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9천명(-1.4%), 여자는 33천명(-1.6%)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14.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18천명(6.6%) 각각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107천명(-17.2%), 건설업 58천명(-13.6%), 전가운수통신금융업 12천명(-1.5%), 도소매음식숙박업 14천명(-1.0%)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1.7%)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5-59세의 고령층 취업자는 4.8%로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 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취업자	전국	0.6 (0.1)	-0.4 (-1.7)	-0.6 (-0.5)	-0.8 (1.6)	-0.8 (1.8)	-0.9 (0.8)	0.0 (1.0)
	서울	-0.2 (-0.2)	-1.5 (-0.3)	-2.4 (-2.0)	-2.3 (1.6)	-2.3 (0.3)	-2.3 (0.4)	-1.5 (0.7)
	남자	-0.1 (-0.4)	-1.4 (-0.1)	-2.2 (-1.7)	-2.6 (1.1)	-2.4 (0.4)	-2.2 (1.3)	-1.4 (0.4)
	여자	-0.3 (0.2)	-1.6 (-0.6)	-2.8 (-2.3)	-1.9 (2.3)	-2.2 (0.1)	-2.5 (-0.7)	-1.6 (1.2)
청년층 취업자	전국	-2.7 (-1.2)	-5.7 (0.5)	-4.8 (-1.6)	-4.9 (-1.3)	-2.8 (3.0)	-2.7 (1.6)	-1.7 (-0.2)
	서울	-5.2 (-2.1)	-5.0 (1.6)	-5.0 (-3.2)	-5.6 (-0.2)	-3.0 (3.8)	-2.3 (2.1)	-1.2 (-0.9)
고령층 취업자	전국	0.4 (-0.1)	1.3 (-4.3)	1.6 (0.7)	2.1 (7.5)	8.6 (4.6)	1.0 (2.0)	4.4 (3.2)
	서울	0.5 (-2.2)	0.1 (0.1)	0.4 (-1.4)	1.8 (5.2)	-1.9 (0.5)	-1.7 (-0.3)	4.8 (4.3)
	55~59세	9.3 (-0.6)	4.0 (2.4)	3.4 (-0.6)	6.6 (5.1)	6.3 (0.6)	1.7 (-1.4)	3.2 (0.9)
	60세 이상	-5.9 (-3.6)	-3.1 (-1.8)	-2.1 (-2.1)	-2.2 (5.4)	-1.7 (0.5)	-4.6 (0.8)	6.2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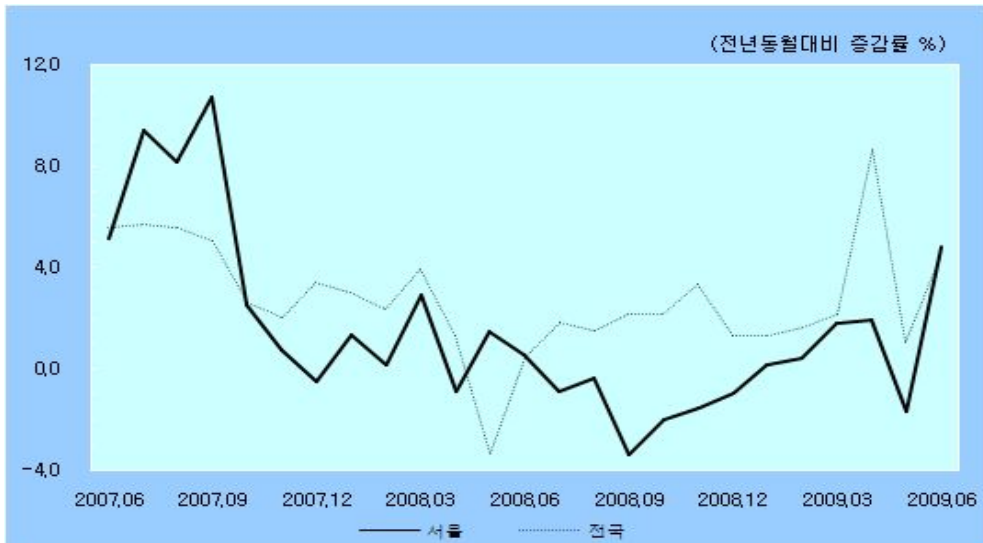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사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는 증가, 서비스 종사,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43천명(3.0%), 사무종사자 20천명(2.4%)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21.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22천명(-8.6%), 서비스·판매종사자 12천명(-0.9%)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2.8%, -1.0% 감소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25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35천명(-2.8%), 임금근로자는 37천명(-1.0%)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30천명(-2.7%), 무급가족종사자는 6천명(-3.2%)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0천명(4.1%)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 76천명(-6.1%), 일용근로자 40천명(-7.5%)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54시간 이상 취업자 각각 1.2%, 7.9% 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9천명(16.8%)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21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명(-3.5%)이 감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4천명(23.5%)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45천명(13.2%)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3천명(-1.2%)이 감소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도 121천명(-7.9%)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10.7%)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별	제조업	-5.8 (-2.9)	-13.5 (2.9)	-14.4 (-5.8)	-12.0 (11.6)	-20.3 (-9.0)	-15.5 (4.5)	-17.2 (-4.8)
	SOC 및 기타서비스업	0.7 (0.2)	0.3 (-0.7)	-0.7 (-1.5)	-0.8 (0.4)	0.4 (1.6)	-0.3 (-0.1)	0.8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7 (1.0)	3.7 (-1.8)	5.3 (0.8)	3.8 (-0.5)	5.1 (2.5)	4.7 (0.4)	6.6 (2.9)
	도소매·음식숙박	1.2 (0.1)	-1.9 (-1.1)	-3.3 (-1.5)	-3.4 (0.4)	-1.6 (0.3)	-2.0 (-0.8)	-1.0 (1.1)
	전기·운수·통신·금융	5.4 (1.0)	-0.6 (3.4)	-2.0 (-3.4)	-2.1 (-0.8)	1.6 (3.3)	-0.2 (0.6)	-1.5 (-0.3)
	건설업	0.8 (-3.9)	-4.5 (-1.5)	-14.8 (-8.1)	-9.4 (6.9)	-14.1 (-1.7)	-15.8 (-1.2)	-13.6 (-1.4)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4 (-0.6)	-2.2 (-0.3)	1.7 (1.2)	-1.2 (-1.5)	2.0 (2.4)	0.3 (-0.9)	3.0 (2.1)
	가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3.6 (-1.1)	-7.3 (-1.7)	-10.3 (-5.1)	-5.6 (6.5)	-11.4 (-3.4)	-9.7 (2.8)	-8.6 (0.1)
	서비스·판매종사자	0.9 (0.1)	0.6 (0.4)	-2.3 (-2.8)	-4.6 (0.3)	-1.9 (-0.2)	-1.7 (0.0)	-0.9 (0.8)
	사무종사자	-0.5 (1.8)	6.7 (0.8)	3.7 (-1.2)	5.0 (1.6)	5.4 (3.2)	5.2 (0.0)	2.4 (-0.9)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1 (-0.6)	-0.2 (0.1)	-1.1 (-2.4)	-0.1 (1.9)	-1.5 (0.1)	-2.7 (-0.1)	-1.0 (1.2)
	비임금근로자	-3.7 (1.1)	-5.1 (-1.5)	-6.1 (-0.7)	-8.5 (0.8)	-4.9 (1.0)	-1.1 (2.0)	-2.8 (-0.6)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6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국대비 0.7%p 높음

- **전국의 연령계층별 실업률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 전국의 6월 실업자는 96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6천명(25.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9천명(29.1%) 증가하였고, 여자는 34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천명(19.9%) 증가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자는 3.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 **서울의 실업률 4.6%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전국(3.9%)대비 0.7%p 높음**
 - 6월 실업자는 23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천명(19.5%)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천명(32.9%)이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78천명으로 1천명(-0.9%)이 감소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3%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하였으며, 여자는 3.6%로 전년동월과 동일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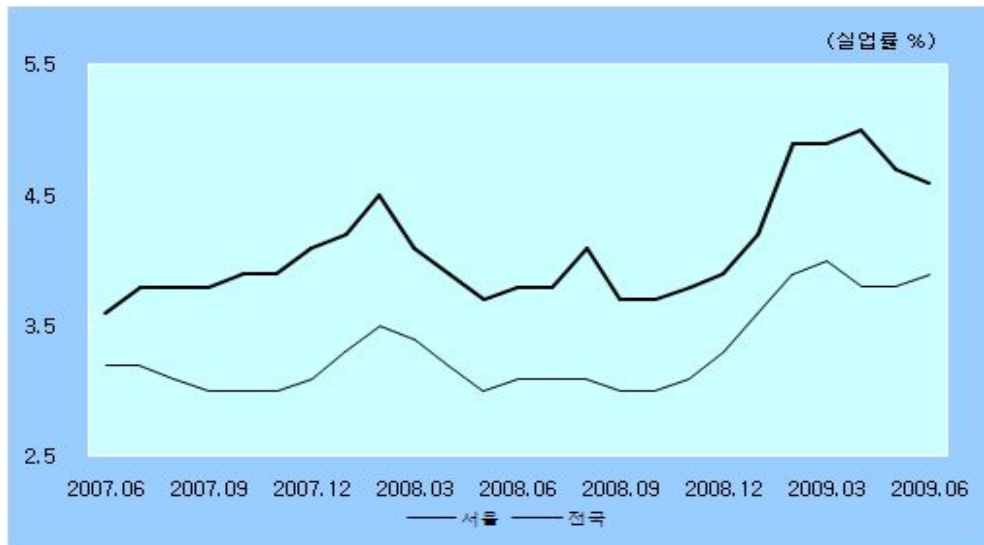
- **서울의 고용률 58.7%로 전국의 고용률(59.8%)보다 1.1%p 낮은 수준**
 - 전국의 5월 고용률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50대 이하에서는 하락, 60대 이상에서는 상승
 - 6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6%로 전년동월대비 1.6%p, 여자는 48.5%로 1.2%p 각각 하락
 -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8.8%)에 비해 0.9%p 낮은 수준임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업률	전국	3.1	3.6	3.9	4.0	3.8	3.8	3.9	
	서울	3.8	4.2	4.9	4.9	5.0	4.7	4.6	
	성별	남자	4.0	5.2	5.9	6.1	5.8	5.2	5.3
		여자	3.6	2.9	3.5	3.4	3.9	4.0	3.6
고용률	전국	60.5	57.3	57.0	57.9	58.8	59.3	59.8	
	서울	60.1	58.3	57.2	58.0	58.2	58.4	58.7	
	성별	남자	71.2	68.7	67.5	68.2	68.5	69.4	69.6
		여자	49.7	48.5	47.3	48.4	48.4	48.0	48.5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설·경·기 |

2009년 5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감소

■ 5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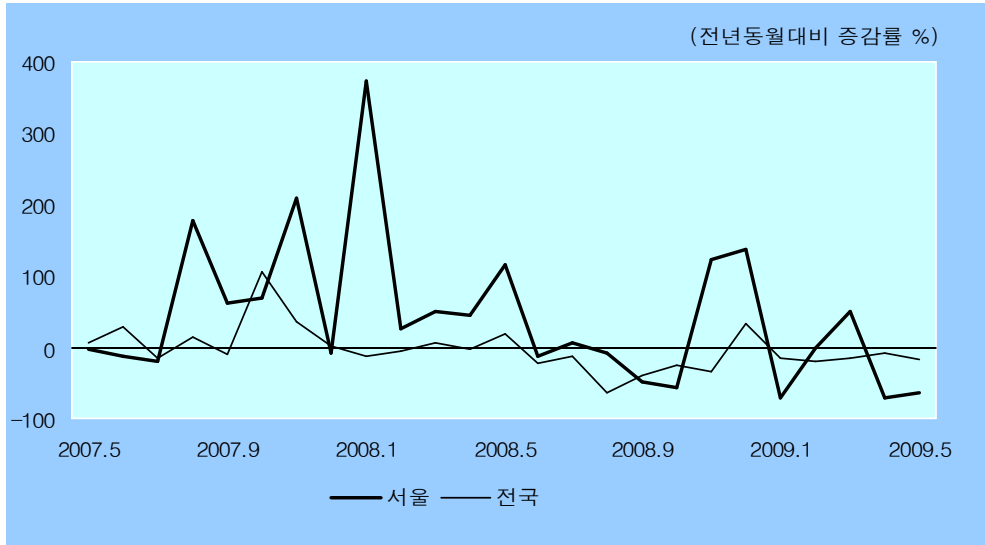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24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2.9%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조 9,88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5%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4.7%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 지하철공사 및 신규주택, 관공서 수주감소로 전년동월대비 78.2% 감소
- 민간부문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 사무실공사 등의 수주감소로 전년동월대비 58.0%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8,578	5,333	4,879	7,354	7,249	6,988	-18.5	-3.6	
서울	2,758	626	1,086	1,716	411	1,024	-62.9	149.1	
발주 자별	공공	672	266	195	502	149	147	-78.2	-1.3
	민간	2,075	359	827	1,183	191	872	-58.0	356.5
공종 별	건축	2,330	520	954	1,635	243	978	-58.0	302.5
	토목	426	104	130	78	165	46	-89.3	-72.1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6월 서울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확대

■ 6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확대

- 6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국지적 개발호재,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매수세 증가로 0.2%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전월대비 상승 폭이 확대됨
- 수도권(0.3%)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기타지방(0.1%)이 전월 보합(0.0%)에서 반등, 광역시(0.1%)는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임

■ 6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확대

- 서울 강남지역(0.5%)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월(0.2%)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강북지역(0.3%)도 국지적인 개발호재로 상승 폭이 확대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6월	5월	6월		
전국	100.4	99.2	99.4	-1.0	0.2
서울	101.1	99.4	99.7	-1.3	0.4
아파트	102.6	99.2	99.7	-2.8	0.5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0.2	99.1	99.4	-0.8	0.3
강남	102.1	99.6	100.1	-1.9	0.5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 확대

- 강북지역에서는 노원구(0.6%)가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 발표 및 성북역 민자역사 개발 등 호재로 매수문의가 증가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은평구(0.5%)는 소형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함
- 그리고 마포구(0.5%)는 경의선 및 신공항 복선전철 개통 호재와 상암동 랜드마크 빌딩 착공 예정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감

■ 강남지역 전월대비 상승 폭 확대

- 강남지역에서는 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관악구(1.0%)가 신림뉴타운 및 서남권 르네상스 개발, 영어마을 건립 등에 따른 수요증가로 단독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함
- 강남구(0.9%)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송파구(0.6%)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한 가운데 3호선 연장선 개통 가시화 등 호재로 상승폭이 확대됨
- 서초구(0.5%)도 한강변 개발 등 호재로 상승세를 보이며 강남 3구 지역의 상승폭이 일제히 확대됨
- 양천구(0.6%)는 지하철 개통 호재와 방학을 앞둔 학군수요 증가로 크게 상승함

■ 6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6월 26일 기준)은 1,777.15만원으로 전월(1,760.05만원) 대비 큰 폭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73만원), 서초구(2,631만원), 용산구(2,532만원), 송파구(2,406만원), 양천구(1,920만원), 강동구(1,800만원), 광진구(1,792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9만원), 중랑구(1,114만원), 강북구(1,121만원), 도봉구(1,132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6월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상승 폭 확대

■ 6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 폭 확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강세가 지속되며 전월(0.2%)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된 0.3% 상승을 보임
- 수도권(0.4%)의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되고 광역시(0.1%)와 기타지방(0.1%)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보임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상승 폭이 0.4%로 전월(0.3%)에 비해 확대되며 강세를 지속한 반면 단독(0.0%)과 연립주택(0.1%)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
- 주택 규모별 전세가격은 대형과 중형이 각각 0.3%, 0.4% 상승하며 전월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되고, 소형(0.2%)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보임

■ 6월 서울 강남지역 전세가격 강세 지속

- 강북지역(0.3%)에서는 서대문구(-0.2%)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중구(0.8%)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심권 수요가 증가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구(0.7%)는 저가 물량이 소진된 이후 물량 부족현상을 보이며 상승 폭이 확대됨
- 강남지역(0.8%)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강서구(1.6%)가 지하철 9호선 개통 임박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및 화곡3주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됨

■ 주요 상승지역은 강서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중구

- 강북지역에서는 중구(0.8%)가 크게 상승하였고 성동구(0.7%)와 도봉구(0.7%)도 크게 상승하였음
- 강남지역에서는 강서구(1.6%), 강남구(1.4%), 서초구(0.8%), 양천구(0.8%) 등 대부분 지역이 크게 상승하였음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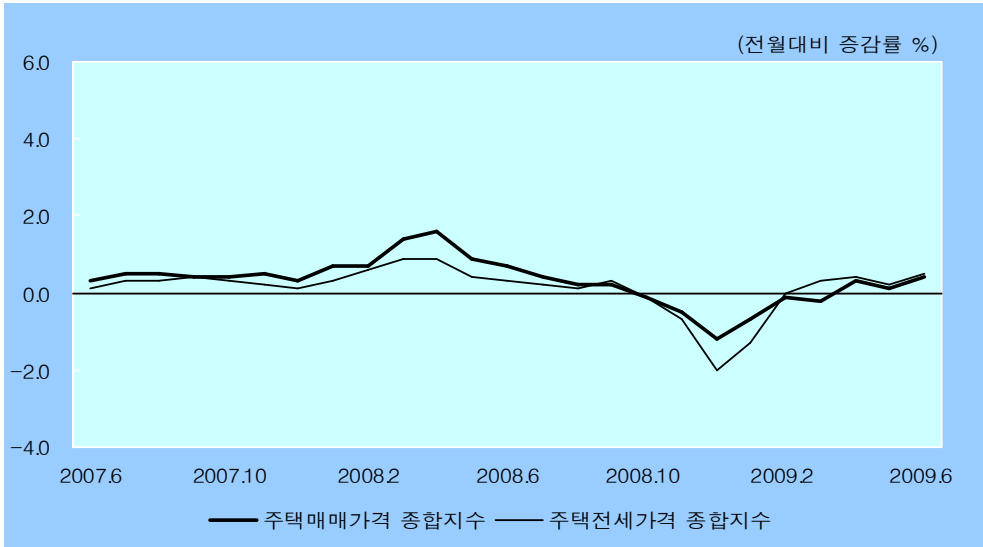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6월	5월	6월		
전국	100.6	99.3	99.6	-1.0	0.3
서울	102.2	99.7	100.2	-1.9	0.5
아파트	103.9	100.2	100.9	-2.8	0.7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1.2	99.1	99.4	-1.8	0.3
강남	103.3	100.3	101.1	-2.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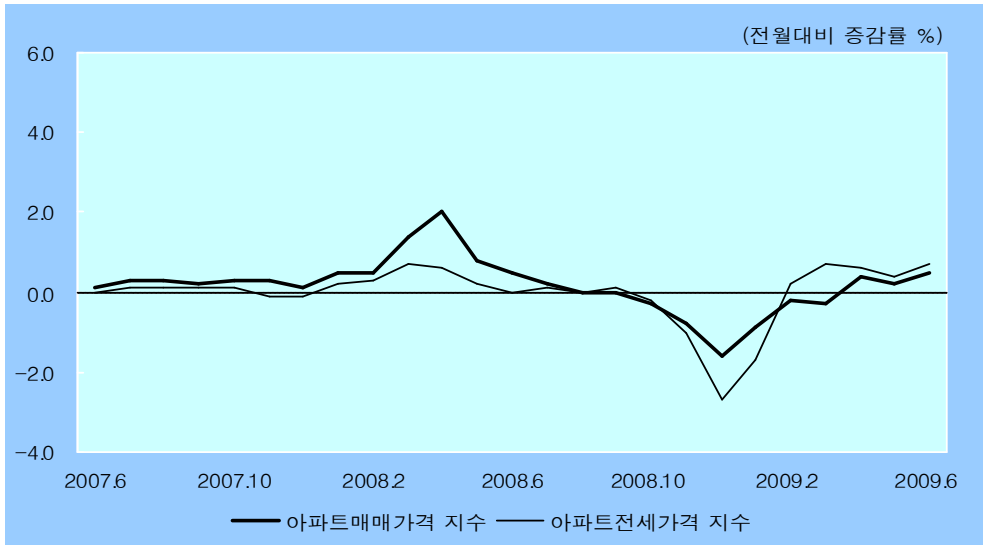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상승세 지속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38.9%로 지속적인 상승세 이어감
(3월 38.6% → 4월 38.7% → 5월 38.8% → 6월 38.9%)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6월 전국 평균 52.7%보다 13.8%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8%p)의 수준 유지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6%, 강남 36.6%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0%p이며 지난 달(5.0%p)과 동일한 수준.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단기시장금리 사상최저 수준에서 안정세 지속

금리

- 단기시장금리 사상최저 수준에서 안정세 지속
 - CD금리는 2.41%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CP금리는 우량물의 발행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사상최저 수준을 경신
- 장기시장금리 전월보다 한 단계 상향조정된 수준에서 변동
 - 장기시장금리는 경기회복 기대 확산 등으로 단기금등한 후 반락하였으나 전월보다 한 단계 상향조정된 수준에서 변동하는 모습
 - 국고채(3년)금리는 4.30%까지 빠르게 올랐다가 기준금리와의 격차 과대 인식,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상승 폭 축소

주가

- 6월 중 KOSPI 지수 조정국면 지속
 - 코스피 지수는 경기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수준이 이를 선행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 등으로 1,400p 근처에서 조정국면 지속
(08년 10.24일 939p → 12월말 1,124p → 09년 4월말 1,369p → 5.20일 1,436p → 6월말 1,390p)
- 6월중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지속
 - 외국인 투자자는 6월에도 국내주식에 대한 순매수를 지속하였으나 5월에 비해서는 순매수 규모가 축소
(외국인순매수: 09년 3월 1.1조원 → 4월 4.1조원 → 5월 4.1조원 → 6.1~7.7일 3.1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금리	국고채(3년)	5.9	3.78	3.69	3.76	3.83	4.09	0.26
	CD(91일물)	5.37	2.70	2.45	2.42	2.41	2.41	0.00
	콜금리(1일)	4.95	2.06	1.77	1.80	1.91	1.93	0.02
	장단기 금리차 ¹⁾	0.53	1.08	1.24	1.34	1.42	1.68	0.26
주 가	KOSPI	1,758.17	1,139.75	1,140.45	1,322.10	1,400.50	1,395.24	-5.26
	KOSDAQ	619.33	377.44	390.98	484.22	533.82	516.39	-17.43
환율 (₩/US\$)	1,031.07	1440.19	1,453.35	1,336.28	1,255.62	1,262.28	6.66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확대

- 은행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3월 1.9조원 → 4월 1.1조원 → 5월 2.8조원 → 6월 4.0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증가,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3.5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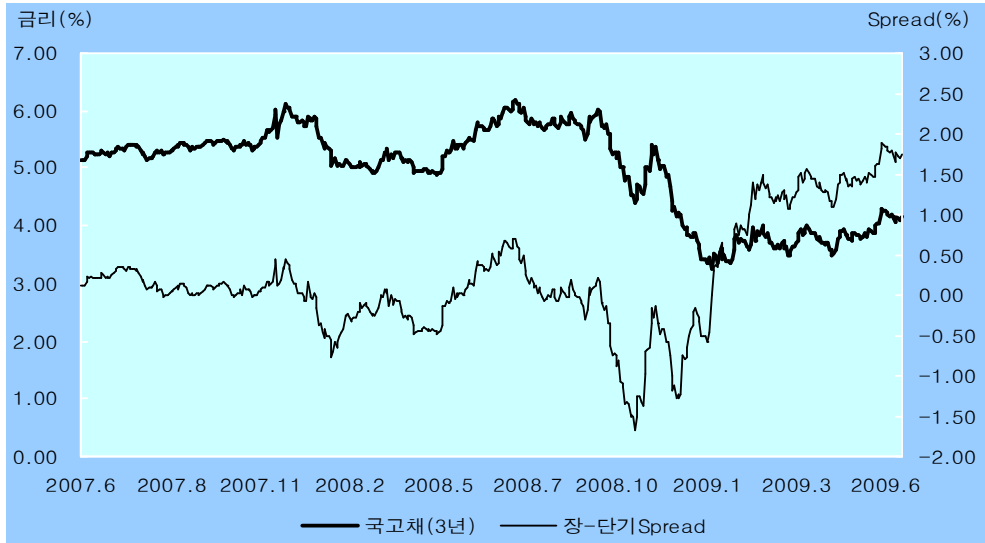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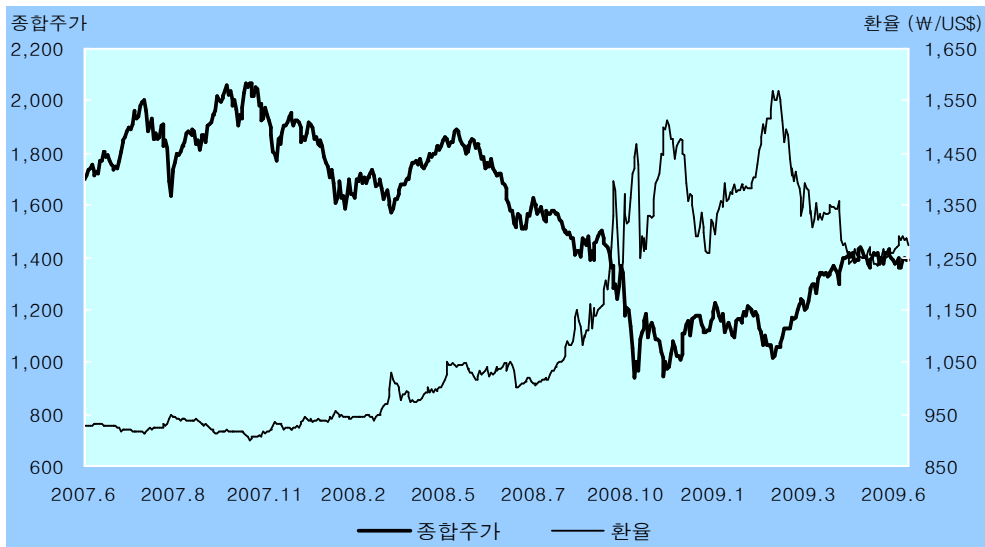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2월	3월	4월	5월	6월	2009년		
							5월	6월	
가계대출 ¹⁾	25.0	2.8	1.9	1.1	2.8	4.0	395.5	399.5	1.01
주택담보대출 ²⁾	18.1	3.3	2.5	1.2	2.4	3.5	250.9	254.4	1.39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0.3	-0.6	0.1	0.5	0.5	143.3	143.8	0.35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5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5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28조 3,786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 6,003억원 (0.38%) 증가
- 5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2조 4,34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486억원 (0.11%)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5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예금은행	858,336.10	926,602.2	934,597.3	940,529.8	943,796.4	3,266.6	0.35
	비은행기관	268,482.00	282,712.9	282,439.1	283,248.5	284,582.2	1,333.7	0.47
	합계	1,126,818.10	1,209,315.1	1,217,036.4	1,223,778.3	1,228,378.6	4,600.3	0.38
서울	예금은행	371,719.00	411,650.6	416,295.3	416,976.7	417,257.8	281.1	0.07
	비은행기관	84,093.60	85,382.6	85,148.7	84,909.1	85,176.6	267.5	0.32
	합계	455,812.60	497,033.2	501,444.0	501,885.8	502,434.4	548.6	0.11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5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5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잔액/총예수금잔액)은 63.9%를 나타내어 전월대비 상승(4월 63.4% → 5월 63.9%)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지난달에 비해 하락하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4월 90.2% → 5월 89.9%)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5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87.8	88.6	90.1	90.2	89.9	-0.3
서울	59.9	62.4	63.6	63.4	62.9	-0.5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업·동·향 |

5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 전국의 신설법인은 4,029개로 전년동월대비 2.0%(84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20.0%(1,009개) 감소
- 이는 기저효과(17개 시도별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로 올해 4월에 5,038개로 최고치를 기록)와 조업일수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 서울 전년동월대비 신설법인 감소

- 5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26개로 전년동월대비 4.1%(61개) 감소하였고 전월비로는 23.6%(44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제조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중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203개로 전년동월대비 58.6%(75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127개로 전년동월대비 7.0%(85개) 감소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 신설법인 수는 91개로 36.4%(52개) 감소하였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113	4,227	4,564	5,038	4,029	-1,009	-20.0	-84	-2.0
서울	1,487	1,409	1,559	1,866	1,426	-440	-23.6	-61	-4.1
서비스업	1,212	1,095	1,231	1,493	1,127	-366	-24.5	-85	-7.0
제조업	128	197	232	248	203	-45	-18.1	75	58.6
건설 및 설비업	143	115	87	111	91	-20	-18.0	-52	-36.4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상승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5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4%로 전월대비 0.01%p 상승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51개로 전월(219개)보다 68개 줄어들어 2007년 9월(138개)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상승

- 5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보다 0.01%p 상승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2개로 전월대비 38.1%(32개) 감소, 전년동월비로는 30.7%(23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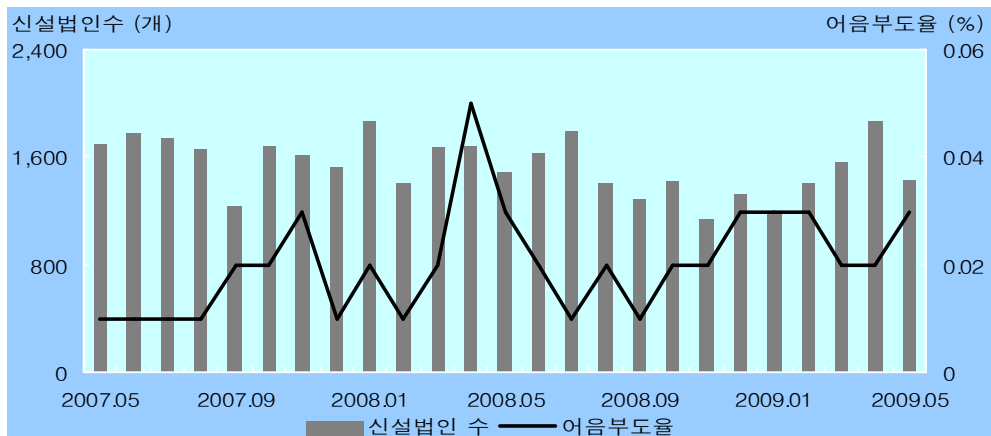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4	0.05	0.03	0.04	0.01	33.3	0.00	0.0
	부도업체 수	202	230	223	219	151	-68	-31.1	-51	-25.2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3	0.02	0.02	0.03	0.01	50.0	0.00	0.0
	부도업체 수	75	73	92	84	52	-32	-38.1	-23	-30.7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확대 지속

- 월간신용보증 10,000건 및 2,000억 3개월 연속 돌파
 - 6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0,894건, 210,545백만원으로 전월 대비 건수 기준 0.2%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금액 기준 1.5%의 증가율을 달성함
 - 한편, 전년 동월 시점과 비교시 건수 기준 100.3%, 금액 기준 166.4%의 증가율을 기록 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평가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이래 신용보증공급 받기 실적 최고치를 달성함
 - 보증공급 건당평균금액 역시 2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감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5,438	4,749	8,873	15,828	10,915	10,894	-21	-0.2	5,466	100.3
금액	79,027	99,315	178,725	281,592	207,449	210,545	3,096	1.5	131,518	166.4
건당평균금액	14.5	20.9	20.1	17.8	19.0	19.3	0.3	1.6	4.8	33.1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전월대비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
 - 6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의 주요내용은, 전월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건수기준 3.5%p(24.0% → 27.5%), 금액기준 3.4%p(23.2% → 26.6%)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요약됨
 - 그러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비중의 합계액은 전월대비 건수 및 금액기준 각각 3.8%p(45.6% → 41.8%), 5.3%p(47.9% → 42.6%)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775	3,777	2,026	2,992	1,324	10,894
비율	7.1	34.7	18.6	27.5	12.1	100
금액	17,504	72,241	38,534	56,028	26,238	210,545
비율	8.3	34.3	18.3	26.6	12.5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지원 지속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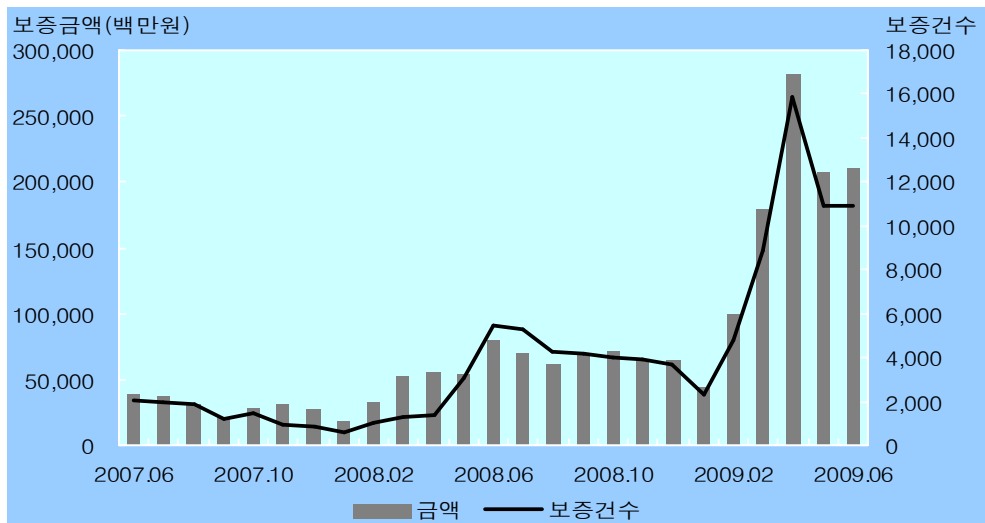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6월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건수기준 97.5%, 금액기준 94.7% 신용보증공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전월대비 건수기준 0.4%p, 금액기준 0.3%p 감소한 수치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04	2009.05	2009.06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5,431	10,689	10,625	-64
	비율	97.5	97.9	97.5	-0.4
	금액	263,350	196,895	199,488	2,593
	비율	93.5	95.0	94.7	-0.3
소기업	건수	348	196	241	45
	비율	2.2	1.8	2.2	0.4
	금액	14,890	7,970	8,850	880
	비율	5.3	3.8	4.2	0.4
중기업	건수	49	30	28	-2
	비율	0.3	0.3	0.3	0
	금액	3,352	2,584	2,205	-379
	비율	1.2	1.2	1.1	-0.1
합계	건수	15,828	10,915	10,894	-21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81,592	207,449	210,545	3,096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전국 수출입 5개월 연속 무역 흑자 달성
 - 6월 전국의 수출입 무역수지는 7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5개월 연속 흑자 달성, 1952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최고 흑자 기록임
 - 교역량(수출액+수입액)도 지난달 일시 감소세에서 벗어나 지난달보다 13.2%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교역량을 보였음
- 전국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대비 감소
 - 6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2.4% 감소한 326.3억달러, 수입은 32.9% 감소한 253.6억달러를 기록
 - 수출은 선박, 가전제품, 금 등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이 감소하여 지난해 6월 대비 46.3억달러 감소하였고 수입도 유가, 원자재가 하락 등으로 124.6억달러 감소
- 서울의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6월 서울의 수출은 25.1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하였고, 수입은 60.0억달러로 16.0% 감소
 - 전월대비로는 서울의 수출과 수입 각각 12.6%, 8.8% 증가
- 6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편직물,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편직물이 184,838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고무제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658,028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자동차이고, 수입의 경우 플라스틱제품으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7,259	25,458	28,068	30,418	28,148	32,634	-4,625	-12.4	4,486	15.9
	수입	37,828	22,529	23,782	24,630	23,088	25,364	-12,464	-32.9	2,276	9.9
서울	수출	2,682	2,235	2,586	2,609	2,229	2,510	-172	-6.4	281	12.6
	수입	7,146	5,149	5,555	6,282	5,517	6,002	-1,144	-16.0	485	8.8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6월		2009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178,712	10.0	184,838	3.4
2	자동차부품	129,703	30.1	139,719	7.7
3	반도체	209,736	0.4	138,875	-33.8
4	고무제품	124,014	15.8	123,789	-0.2
5	컴퓨터	107,283	24.3	114,099	6.4
6	자동차	53,614	-8.9	97,165	81.2
7	합성수지	103,192	0.7	96,234	-6.7
8	무선통신기기	89,413	7.2	86,322	-3.5
9	의류	98,771	6.5	84,152	-14.8
10	인조장섬유직물	78,152	20.5	72,511	-7.2
	합계	2,681,659	13.6	2,510,106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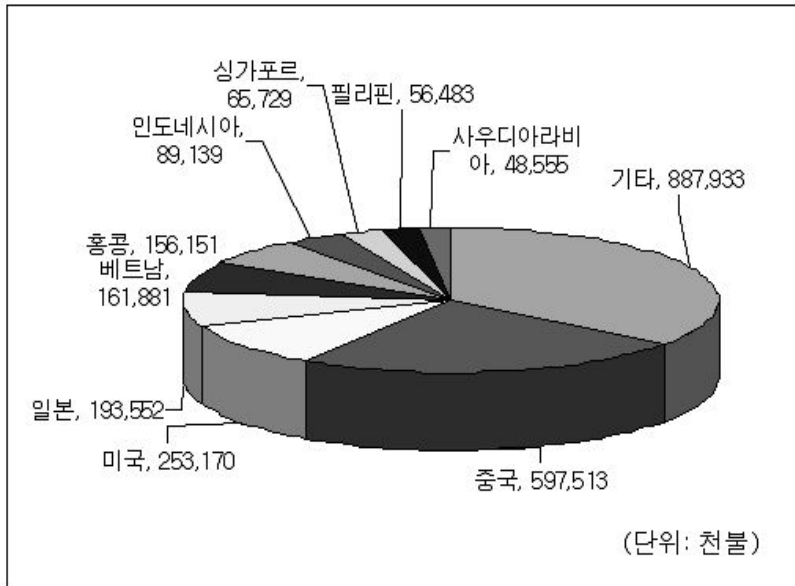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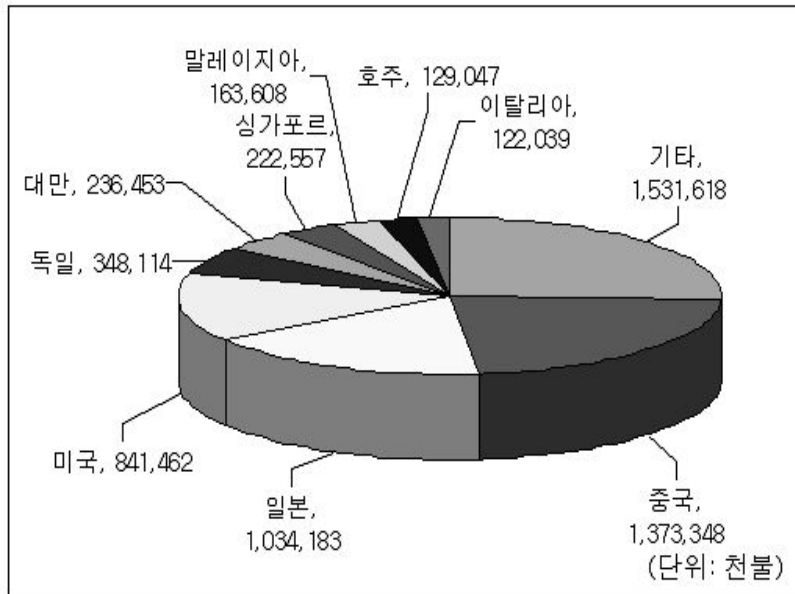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6월		2009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12,016	78.1	658,028	-7.6
2	컴퓨터	480,164	-18.7	380,984	-20.7
3	자동차	249,186	-6.4	229,192	-8.0
4	플라스틱제품	78,779	6.2	192,308	144.1
5	석유제품	132,699	-2.8	180,300	35.9
6	의류	190,939	-14.4	148,617	-22.2
7	곡실류	117,493	36.1	139,664	18.9
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0,803	184.2	136,244	35.2
9	무선통신기기	163,146	74.9	135,717	-16.8
10	농약및의약품	133,434	21.1	134,018	0.4
	합계	7,145,983	23.8	6,002,429	-16.0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